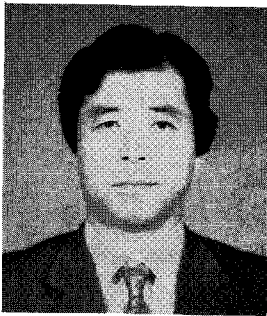


公害와 국민의식

理性회복이 공해문제 해결의 지름길



丁日聲

(서울신문·생활과학부기자)

公害가 심상치 않다. 아름다웠던 금수강산이 쓰레기로 오염된지 오래며 도심지는 각종 有害가스로 가득차 코를 막지않고는 제대로 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文明의 재앙」으로 불리는 산성비가 계절도 때도없이 내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고 전국의 上水源이 폐·오수로 크게 오염되어 수도물도 마음놓고 마실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사회의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환경처가 지난 겨울 퍼낸 환경연감을 보면 실감할수 있다. 우리사회의 公害문제는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염진행속도가 이를 훨씬 앞질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사실 公害만큼 무서운 재앙도 드물다. 인간에게 불치의 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지난 52년에 있

었던 英國 런던의 스모그현상과 56년도의 日本 미나마타病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런던의 스모그현상은 자그마치 8천여명의 인명을 앓아갔으며 미나마타病은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함께 美國에서만 연간 평균 1백만명이 이상이 公害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죽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는 美國 환경관계전문연구소의 최근 보고는 가히 충격적이다.

그러나 우리국민은 이러한 공포의 대상을 아직도 「강건너 불」로 보는 경향이어서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기업들은 환경법규를 마지못해 지키는 시늉만 하기 일쑤고 정부정책은 여전히 경제개발우선주의에 젖어 걸치레 수준을 맴돌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규도 미온적이어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될때 내는 배출부과금의 경우 公害방지시설운영비보다 싼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公害물질을 함부로 내다버리는 것은 불을 보듯 훤히 다. 지난한해만해도 公害물질 무단폐기행위는 모두 2천8백65건이나 적발됐다. 배출부과금도 55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열손가락안에 드는 유명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3번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소도 20개를 넘는다. 일례로 慶南지방의 모펄프회사는 연간 23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公害방지시설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폐기물을 몰래 버리다 적발되어 1억5천여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물었다. 이들 몰지각한 기업들이 버린 불법폐기물이 강물오염의 주

범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윤추구를 지상목표로 삼는 기업은 그렇다 치자. 가정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역시 時流와 큰 차이가 없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淑大가정대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부들이 환경오염방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행동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국민이 公害문제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가는 금년여름 피서지에 버려진 쓰레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전시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민 역시 자연이 곧 자신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성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중에서 기업인의 임무는 막중하다. 「나하나만은 어떠랴」는 자기합리화방식은 하루속히 떨쳐버려야 할 일이다. 외국에서 물을 따로 수입해 마시지 않는한 기업인도 자신이 버린 중금속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마련이다. 지금이야말로 「자연은 인간이 학대한만큼 禍를 인간에게 되돌려 준다」는 자연법칙을 곰곰 되새겨 볼때다.

아울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보전이나 공

“
지금이야말로 「자연은 인간이
학대한만큼 禍를 인간에게 되돌려 준다」는
자연법칙을 곰곰히 되새겨 볼때다.
”

보라, 산과 바다를. 인간의 발이 그리 쉽게 닿지 않는 심산유곡까지도 쓰레기사태를 빚고 있지 않은가. 치위도 치위도 끝이 없다. 이제는 쓰레기를 수거해 위생처리할 마땅한 장소도 없게됐다.

혹자는 이를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三等시민의 덜 떨어진 利己心의 발로라고 풀이한다. 또 더러는 GNP를 다른 가치들에 앞세우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사고방식이 알게 모르게 지배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사회는 지난 30년동안 「성장」과 「건설」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해」나 「환경오염」 문제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게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올림픽을 치른지도 2년이 지났다. 국민들의 생활패턴도 선진국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선진국의 빠져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환경오염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해방지가 경제성장이나 건설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도덕적 가치수준으로 승화시키는 일에도 중지를 모아야 한다.

어쩌면 더딘 방법같아 보이지만 공해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아니고는 닥쳐오고 있는 환경의 위기를 피해나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운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솔선수범등 사회적인 분위기조성이 선행되어야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외국의 경우 합성세제를 사용하는 주부들은 세제로 그릇을 닦은 뒤 그 물을 별도의 용기에 담았다가 동네에 마련된 일정한 탱크에 버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특히 日本에서는 오래전부터 샴푸를 쓰지말자는 소비자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도 못해낼 이유는 하나도 없다. 모든 행위의 「가해자」는 곧 「피해자」라는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전 국민이 뜻을 모아 위험수위에 이른 환경오염을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자. ◀